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국조선해양, KSS해운 LPG선 1척 875억원에 수주

한국조선해양은 KSS해운으로부터 91,000CBM급 이중연료추진 LPG선 1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계약규모는 875억원이며, 2022년 하반기에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태국 최대 국영석유회사인 PTT사에 용선용으로 투입될 예정으로 알려짐. (선박 뉴스)

IEA cuts global oil demand forecast on Covid-19 resurgence

COVID-19 확산세 지속으로 인해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2021년 상반기 원유 수요 전망치가 하향조정 됐다고 보도됨. 2021년 1분기 원유 수요량 전망치가 일일 600,000배럴가량 하향조정 됐다고 보도됨. 다만 하반기 수요 회복으로 2021년 연간 수요 전망치는 9,660만bpd라고 보도됨. (Upstream)

Aramco poised to delay awards for multiple offshore projects

사우디 아람코가 6개 가량의 해양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 대상자 선정 일정을 연기했다고 보도됨. 해당 계약은 2020년부터 LTA(Long Term Agreement)를 체결한 글로벌 EPC업체들과의 논의 중이던 계약 건으로 알려짐. 시장관계자들에 따르면 4개의 계약 건에 대해서 최소 4월까지 일정이 연기되며 2020년 4분기 중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2건의 계약에 대해서도 signing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됨. (Upstream)

Scrubber savings rise to \$5,000 per day as 40% of VLCCs set to be retrofitted

저유황유-고유황유 간 스프레드가 최저 수준을 벗어남에 따라 탱커 선주들은 일일 5천달러 수준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됨. 2020년 팬데믹 전후로 스프레드는 톤 당 250~300달러에서 40~60달러 수준까지 축소되었으며 이는 비용절감 측면에서 일일 16,000달러에서 3,000달러수준까지 악화됨을 의미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조선업계 1분기는 uphill battle

1분기 중에 고대하던 컨테이너선 신조 발주가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보도됨. 가능성이 가장 큰 프로젝트는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Evergreen Marine과 Wan Hai Lines 신조 발주 프로젝트라고 보도됨. 브로커들은 2020년 하반기에 강세를 보였던 VLGC 신조 시장 또한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세계 최초 롤스로이스 '양산 적합성' 승인 획득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세계 3대 항공기 엔진 제작사인 영국 롤스로이스(Rolls-Royce)사로부터 세계 최초로 양산 적합성 자체 검토 및 승인 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힘. 이로써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새롭게 개발된 항공엔진 부품이 본격적인 양산 공급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요구되는 품질수준을 검증하고 승인하는 절차(PPAP, Production Part Approval Process)를 롤스로이스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됨. (파이낸셜뉴스)